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미래전장 환경변화에 따른 특수부대
교육 발전방안

—정예화, 임무달성을 중심으로—

2014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김 수 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미래전장 환경변화에 따른 특수부대 교육 발전방안

—정예화, 임무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warfare training
in light of the environment change of the future combat
— focusing elitism and accomplishment of task —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국방경영전공

김수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미래전장 환경변화에 따른 특수부대 교육 발전방안

—정예화, 임무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warfare training
in light of the environment change of the future combat
— focusing elitism and accomplishment of task —

위 논문을 국방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국방경영전공

김수영

김수영의 국방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미래전장 환경변화에 따른 특수부대 교육 발전방안 -정예화, 임무달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국방경영전공
김 수 영

본 논문은 군의 존재 목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특수전부대의 교육 문제 발전방향을 미래전장 환경변화에 맞게 제시함으로써 아 특수전부대를 정예화하고 임무달성이 용이토록 하여 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작고 강한 특수전부대를 육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인 정예화·임무달성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작성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안보환경과 사회여건의 변화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안보환경 측면에서 유동적인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생존과 협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전면전 가능성은 감소되나 자국 이익(영토·영해)을 위한 국지적 분쟁은 지속되고 한반도는 남·북간 국력격차가 심화되나 교류·협력 등 군사적 대치의 이중적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이며 전시작전권 전환이후 한국군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의 저하로 군입대자원이 줄어들고, 군 구조 개혁으로 한국군은 양적 군대에서 질적으로 강한군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여건 변화 측면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이전 및 민유지 반환요구의 증대와 국민생활 편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사격장 소음, 훈련부대 이동에 따른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되고,

국민의 안보에 대한 관심 저하와 생활불편을 이유로 훈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등 국민적 다양한 요구로 교육훈련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또 신세대 장병은 일반적으로 체격은 향상되나 체력은 저하되며 국가관 및 안보의식이 약하여 군 교육시간 소요는 증가되는 반면 군복무 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이에따라 신세대 장병의 특징에 부합되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사회여건 환경변화와 요구능력을 수용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론에 제시된 구체적인 방법이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아 특수전부대의 전투력 증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전면전, 전시작전권, 신세대 장병, 작전적, 전시 교육훈련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특수작전과 교육훈련의 관계	4
2.1 교육훈련과 특수작전의 개념	4
2.2 미래 교육훈련 환경변화 전망	5
2.3 특수교육 훈련의 가치와 특성	6
2.4 전시 작전환경 및 북한군 위협	16
2.5 특수작전 교육실태 강점과 약점	31
III. 특수부대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35
3.1 우수인력 획득 방안	35
3.2 전시 동원훈련 방법 개선	36
3.3 실전적 훈련방법	37
3.4 과학화 훈련장 건설	48
3.5 조직의 정예화	49
IV. 결 론	51
참고문헌	54
ABSTRACT	56

표 목 차

<표 1> 교육훈련 패러다임 주요변화	11
<표 2> 과학화 교육훈련 용어 설명	13
<표 3> 교육훈련방법 과학화 및 활용	15
<표 4> 학교교육 발전방안	15
<표 5> 부대훈련 발전방안	16
<표 6> 특전대대 중대장 특급전사 요망수준 도달여부	32
<표 7> 특전대대 부중대장 특급전사 요망수준 도달여부	32
<표 8> 특전대대 부사관 특급전사 요망수준 도달여부	32
<표 9> 연차별 요망수준	33
<표 10> 생존훈련 모델	47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미래 전쟁수행 방식의 디지털화,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지식중심 사회발전의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군사분야에 대한 새로운 변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군의 임무는 국제적인 무한 경쟁시대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다양한 위협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 전력을 극대화하며,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첨단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 지상전 수행능력을 배양하며,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자주적 군사력 건설에 요구되는 정보, 지식 및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특수전부대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한 환경변화 및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에서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 지상전 양상 및 군 구조 변화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다양한 갈등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지속적인 국지분쟁은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영토를 수호하는 전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테러, 재난 등의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과학군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미래 지상전은 첨단화·광역화·동시화·공유화된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 동시·통합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장환경의 가시화 및 전투력 운영의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해야 하며, 다차원화된 디지털 전장에서 전력체계의 동시적 통합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 구조 변화는 미래지상전 양상의 획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대 그리고 전력구조의 불완전성·불균형성을 개선하여 양적구조에서 미래지향적인 질적구조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제대별·병과별 전투력의 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요구능력이 다양화되고, 전장 환경에 부합되는 전투수행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소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상시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한 강병 육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지식·고기술·고능력을 구비한 다재 다능한 강한 전투전사와 협동성·합동성·통합성을 구비한 강한 전투부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화·전문화·실전화·평생화된 교육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교육훈련 환경변화 측면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의 도래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지식·기술·정보가 개인·군대·국가의 경쟁력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Mobile), 버추얼(Virtual), 온라인 생활환경으로 발달되었으며, 첨단화된 다중교육매체의 발달과 교수 학습기법의 발달은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이 디지털식 환경하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입체적 체험학습으로 교육수요자 위주의 개방적이고 평생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이전 및 민유지 반환요구의 증가,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저하 등 국민적 요구의 다양화와 국토의 도시화로 인해 훈련공간이 지속적으로 제한을 받을 것이며, 신세대 장병들은 정보화 기기의 사용에 익숙하며, 운용능력이 뛰어나나, 개인주의적성향이 강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체격은 향상되었으나, 체력은 과거에 비해 약해지고 안보의식 및 군인정신 약화 등 신세대 장병의 특징에 부합되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미래전장 환경변화에 따른 특수전부대 육성 발전방안을 정예화, 임무달성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i

군 교육훈련은 크게 4가지(학교교육, 부대훈련, 간부계발, 교육훈련지원)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연구시간과 자료 등의 제한사항이 있어 학교교육과 부대훈련 2가지 측면을 위주로 연구를 하였고, 간부계발과 교육훈련지원은 소개 위주로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방법은 군 교육훈련 연구자료(특히, 환경변화 분야)를 바탕으로 군 교육훈련 기관의 연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가미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구성은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은 특수작전과 교육훈련의 관계, 제III장은 특수부대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제IV장은 결론 순으로 작성하였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문명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군사분야에서도 새로운 전쟁양상의 출현과 더불어 무기체계, 운용개념, 전투기술을 획기적으로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미래의 안보환경은 비대칭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하여 비군사적인 신종위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익중심의 안보논리가 확산됨에 따라 전시 교육훈련체계가 실전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겠다. 인터넷 발달이 가속화되는 사회에서는 생활 전반에 걸쳐 자동화·디지털화가 될 것이며, 전쟁의 양상도 전장가시화, 정보공유, 장거리 정밀교전, 그리고 작전템포의 가속화가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장이 출현될 것이다. 따라서 다재다능한 지적능력이 요구되는 지식정보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 출현에 대비하고, 미래 정장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및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전시 교육훈련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서의 미래전 양상, 군 구조변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및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여건의 변화 등을 전망하고 전시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야전부대의 현실태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요즘 대세가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교육훈련이라면 전시 교육훈련체계도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여기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에 가장 위협이 되는 적 특수전 부대

에 대비한 우리 특수전 부대에 대한 iv실전적 교육훈련방법에 대해 아래 다섯가지에 중점을 두고 토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수한 자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모병방법 개선과

둘째, 전시교육훈련(동원훈련)간 문제점을 보완하고

셋째, 모집된 자원을 어떻게 과학적, 실전적으로 훈련시킬 것인가

넷째, 훈련시킬 훈련장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다섯째, 준비된 인원을 어떤 작전을 수행하여 작전적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특수작전과 교육훈련의 관계

2.1 교육훈련과 특수작전의 개념

교육이란 개인이나 부대가 전·평시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며, 훈련은 개인이나 부대가 전·평시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기술을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천적인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교육훈련은 교육과 훈련, 연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개인 또는 부대가 전·평시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을 함양하고 전투기술과 전투수행절차 등을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이다. 통상 교육과 훈련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학교에서는 교육의 측면이, 야전에서는 훈련의 측면이 강조된다. 특수작전이란 육군 교육훈련의 일부로 특전사, 특공·수색부대, 해병대 등에서 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 특수전작전 부대가 전·평시 국내·외, 적 지역 또는 분쟁 발생지역에서 국가 또는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정규군 또는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군사작전을 말한다. 이러한 특수작전에는 특수정찰, 타격작전, 중요지역통제, 인질구출작전, 비정규전작전, 탐색구조작전, 대테러작전이 포함된다. 특수작전은 전시 적의

정치, 군사, 경제 또는 심리적인 취약성을 이용하여 배후를 교란하고 전투력 분산을 강요하며, 동원능력을 와해시켜 전쟁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수정찰을 통한 표적획득과 화력유도를 통해 상급부대 및 타 작전사의 작전여건을 보장하고, 비정규전 작전시 저항세력을 활용한 적 후방 동시 전장화 등 다양한 작전을 통해 전쟁 조기종결에 기여한다. 또한 평시 및 위기발생시 저항세력을 활용한 적 후방 동시 전장화 등 다양한 작전을 통해 전쟁 조기종결에 기여한다. 또한 평시 및 위기발생시 인질구출작전, 대테러작전 등 신속한 대응 및 저지로 국가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2.2 미래 교육훈련 환경변화 전망

군의 존재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군의 역할과 사명은 시대와 국가의 위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먼저, 미래에는 유동적 안보 정세하에서 국제정세는 생존·협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는 미국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면전 가능성은 감소되나 자국 이익을 위해 협력·견제 및 다양한 형태의 국지적 분쟁이 지속되고 비군사적 위협은 증대될 것이며, 동북아는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중·러의 군사력 증강 표면화로 지역 불안정요인은 상존하며, 한반도는 남·북간 국력격차는 심화되고 교류·협력과 군사적 대치의 이중적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는 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이며 전시작전권 전환이후 한국군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여건은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이전 및 민유지 반환요구의 증대와 국민생활 편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사격장 소음, 훈련부대 이동에 따른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되고, 국민의 안보에 대한 관심 저하와 생활불편을 이유로 훈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등 국민적 다양한 요구와 도시화로 교육훈련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신세대 장병들은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기기의 사용에 친숙하고 운용능력이 뛰어나며, 자유분방한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자

기중심, 개인주의적 성향은 강하나, 단체활동과 인내심은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체격은 향상되고, 체력은 저하되며, 국가관 및 안보의식이 약하고 군인 기본자질 함양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군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2.3 군 교육훈련의 가치와 특성

2.3.1 국방부 교육훈련 목표·정책방향/추진지침

국방부 교육훈련 목표·정책방향은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이라는 국방비전 달성을 위한 "미래 전장하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 및 부대 육성"하는데 있다 교육훈련을 통해 육성해야 할 바람직한 군인 및 부대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다 첫째, 복합적인 임무수행 능력을 갖춘 다기능 전투원으로 복합적인 전장에서 당면하게 될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다기능 전투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첨단장비 운용능력을 구비하고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며 건전한 윤리적 기반과 강인한 체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둘째, 고도의 군사지식과 리더십을 구비한 창의적 군사전문가 육성으로 미래 다양한 안보위협과 불확실한 전장상황을 주도하고, 정보화·과학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 군사전문가를 육성하여 해당 특기에 정통한 전문적인 군사지식 및 리더십을 함양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한 정예부대로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상시 전투준비태세가 완비된 정예부대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각 전투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임무위주 상황연구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부대 단위별 합동성 강화 발휘 능력을 보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지침으로 첫째,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혁신으로 목표는 다기능 전투전문가를 육성하고 협동 및 합동성을 제고하며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해 합동참모대학 및 각 군 대학 교육체계 연계를 통해 발전과 전장기능별 유사병과 통합교육 및 합동 군사교

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자위참모과정 통합교육 확대와 병과교육 효율성·합동성 제고를 위한 제병 협동·합동교육의 강화 등이다. 둘째, 학교교육 체계의 발전으로 목표는 강한전사 양성과 학교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성교육 체계 개선 및 군 내·외간 협력을 강화하고, 군 정예화를 위한 양성교육 체계를 개선하며, 야전 수요중심의 보수교육체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셋째, 부대훈련체계 발전으로 목표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전투수행 가능한 개인훈련 및 부대훈련체계 개선과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으로 전투전문가 육성을 위한 개인훈련체계 개선과 정예부대 육성을 위한 집체훈련 개선, 미래전 대비 부대훈련체계 개선 등이다. 넷째, 전문 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의 목표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시·공간, 대상에 제한없는 교육환경 구축과 무형전력의 강화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직무지식 습득 여건을 향상시키며, 정신전력과 리더십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훈련 환경과 여건 개선의 목표는 실전적 훈련여건 보장과 야전의 완전성에 기여하기 위해 훈련장 재설계 및 개발, 원격교육체계 발전을 위해 미래전을 대비한 훈련장 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정보화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참모학, 2012:63-64)

2.3.2 교육훈련 환경변화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는 첫째,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증대로 미래 한반도 전장환경은 북한 등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 혹은 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양상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며, 초국가적인 안보 위협세력의 등장으로 평화추구를 위한 국제협력이 커짐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전장 공간의 광역화로 미래 전장은 군사력의 핵심요소가 정보·지식·네트워크의 총합으로 기존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 외에 우주 및 가상공간이 추가되어 5차원(지상·해상·공중·우주·가상공간) 입체 형태로 확대됨에 따라,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지상영역은 소규모로 분산화, 특수전화된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데

해상영역은 원해 입체해양작전이 가능한 형태로, 공중영역은 조기경보 능력 강화 및 스텔스화 된 전력 운용의 보편화, 우주영역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가 전략적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디지털 전장화로 미래전은 전장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수행 개념과 수단이 지식·정보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전장의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능력으로는 실시간의 전투공간 상황인식, 전장기능간의 정보 공유, 전투력의 효율적·결정적 상황인식, 초고속 정보자료 교환, 감지에서 타격수단까지 표적 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이 있다. 넷째, 전투 효율성의 극대화로 미래전장은 대량파괴 및 인명손실 최소화 추구로 실 전투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로인해 적 중심만을 선택적으로 정밀 파괴하고, 결정적 기동에 의한 조기 작전종결을 추구하고, 비대칭적 대응개념과 수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미래전 양상은 첫째, 정보·정밀타격전으로 미래전은 화력과 기동중심의 점멸전 양상보다는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적의 정보체계를 파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무기체계는 C4I 및 정밀유도무기로 구성되는 시스템 복합체계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둘째, 입체고속기동전으로 미래전장에서는 첨단 정보통신체계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됨으로써 "시간에 맞추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신속결정작전 혹은 효과중심작전 개념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미래전의 양상은 정밀공격·정보전·주도적 기동 그리고 우주전 등이 개별적이 아니라 중첩되어 나타날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에서는 군사력의 핵심요소가 정보·지식·기술·네트워크의 총합임으로 미래지향적인 지휘통제체계를 통해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합동작전이 원활히 수행될 것이다 또 네트워크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전은 군의 첨단화된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이에 대응한 과학화·디지털화된 교육훈련 역량강화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우주전(Space War)은 조기경보 및 감시정찰 활동 등의 우주 자산을 이용하게 되면 정찰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전장에 대한 조정 통제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며 개인 및 부대 전술 훈련시 위성항법체계 장착이 의무화되어 시·공간을 초월해 실시간으로

합동 및 연합 훈련이나 이동 상황이~~x~~ 확인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공유 될 것이다.

장병자질의 변화는 첫째,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의 약화와 개인주의 성향의 증대로 안보의식이 저하되는 등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입대 장병들의 정신·육체적 수준이 군의 기대수준에 미달하고, 훈련에 대한 불만 및 요구가 다양해짐으로써 군인정신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 교육기회 부족으로 대부분의 입대 장병들은 군 복무기간을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인생의 정체기로 인식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군 복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바 자기개발의 시·공간이 부족한 장병들에게 대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로 병사 군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장비운용 숙달능력이 저하되고, 첨단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핵심 전투기술 직위에 투입될 숙련된 자원을 모집하는 유급지원병제 시행 등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 해야겠다. 셋째, 정보화 운용능력 우수로 최근 입대 장병들은 정보화 기기를 쉽게 접하고 능숙하게 다룸으로써 정보화 교육훈련 등에 대한 교육소요가 다양화되 On-Line에서 활발한 활동은 Off-Line에서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상하 혹은 동료 간 의사소통을 위해 리더십 및 인성교육을 강조해야겠다.

군 구조 및 무기체계 변화는 첫째, 병력·신분·규모의 변화로 현재 00만 여명인 우리 군은 첨단무기체계의 확보와 연계하여 0000년까지 00만여명 수준으로 감축하여 정예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병력구성은 전문성을 갖춘 간부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선진국형 인력구조로 전환. 간부 대비 병 비율은 현재의 25:75에서 40:60으로 조정되므로 간부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 군구조 변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국방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반 교육훈련 관련 부서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전 대비 무기체계의 변화로 현존하는 북한 위협은 물론 미래 다양한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

는 적정 전력 구비를 목표로 전력구조 발전을 하여야하며 미래전에 대비하여 정보·지식 기반의 첨단 전력체계를 확충하고 전투 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운용할 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체계가 뒷받침 되어져야 하겠다.

훈련 환경 및 여건 변화는 첫째, 훈련장 유지 및 확보의 어려움으로 우리 군은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 개발로 인해 기존 훈련장 활용 및 유지에 어려움(시내 혹은 도시에 인접해 있는 훈련장들은 지역민과 지방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중)이 있으며, 무기체계의 발달 및 부대 구조개편에 따른 적정 훈련장 확보가 필요하므로 기존훈련장 통·폐합 및 필수 훈련장 신설 등 다양한 확보방안 강구되어야 하겠다. 해상이나 공중 무기 체계에 대한 실질적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훈련장 개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개념의 훈련장을 개발하여야겠다. 둘째, 기동 훈련의 제한 및 사이버 원격교육 훈련소요 증대로 환경오염과 유가인상에 따른 기동훈련 축소 상황, 훈련장 부족 해소와 병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훈련체계 발전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은 소집위주 교육에서 원격교육소요가 증대될 것이며, 정보화·과학화에 따라 시뮬레이션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미래전 양상은 제 작전요소들의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중심전이 될 것이며, 테러·자연재해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증대로 최단시간내 적 중심을 식별하여 결심·타격하는 효과중심작전의 중요성 증대되고, 첨단 과학기술과 최신 무기체계에 의한 지식·정보 중심전이 될 것이며, 한반도 지형특성상 산악 및 도시지역 전투가 주를 이룰 것이다. 이에 육군은 지상전 기본개념을 「네트워크기반 동시·통합전」으로 설정하여, 제 전장 기능을 통합 지상작전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이를위해 첫째, 군구조 변화로 군구조 개편 방향 기본목표를 병력 위조 양적 재래식 구조에서 기술위주 질적 첨단구조로 변화시켜야 하며, 구조설계는 병력은 감축되나 작전능력은 증대되고, 지휘구조를 임무에 적합하게 조직하고 능률성을 제고시키며, 병력구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예화 시키며 부대구조는 지휘계선 단축 및 부대수 축소로 완전성을 보

장하고 전력구조는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와 장비를 확보해야 하겠다. 둘째, 육군은 미래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합동전 개념하에서 지상군 임무와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부대 및 전력구조를 개선하여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부 편성 비율은 첨단무기 운용요원과 부지휘관을 포함하여 40%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및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보통신의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교육훈련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교육훈련 자료의 영상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모든 제대가 사이버상에서 참여하여 훈련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망, 원격화상, 모의장비, 전자학습 등을 이용한 교육훈련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훈련 패러다임의 주요변화방향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어질 것이다.

<표 1> 교육훈련 패러다임 주요변화

구 분	전통적 교육	미래의 교육
교육환경	· 오프라인 아날로그식	· 온라인 디지털식
교육형태	· 타율적 암기식 훈련	· 자율적 창의적 학습
교육주체	· 교육공급자의 전달	· 교육수요자의 참여
교육기회	· 폐쇄적으로 대상 제한	· 개방적으로 평생 허용
지식유통	· 교육공급자 독점	· 학습수요자 공유
교육기관	· 획일적 소집교육 기능	· 다양한 정보자원센터 기능
교육풍토	· 정적인 관리통제	· 동적인 상호작용
교육내용	· 교육공급자 독점	· 교육수요자 공유
교육방식	· 일방적 주입학습	· 입체적 체험학습

넷째, 사회여건의 변화는 국민적 요구의 다양화 · 도시화로 인한 훈련공간 제한으로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이전 및 민유지 반환요구는 증대되고,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사격장 소음, 훈련부대 이동에 따른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훈련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생활불편을 이유로 군 훈련에 대한불만 증가될 것이다. 신세대 장병의 특성으로 정보화 기기의 사용에 친숙해져 운용능력이 우수하며 자유분방한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개성과 자기중심·개인주의적 성향은 강하나, 스스로 참고 견디는 저항력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체격조건은 향상되었으나, 체력수준 저조해지고 국가관 및 안보의식이 약하여 군인정신·기본자세 등 군인 기본자질 함양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되었다.

과학화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교육훈련 환경변화로 미래전 양상, 군 구조 변화, 첨단 과학기술 발전, 사회여건 변화와 교육훈련의 영향요인 합동·협동성 강화, 적전능력 향상, 훈련체계 방법 발전, 훈련여건 보장 등으로 절실했다. 첫째, 협조된 작전의 수행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과 민간 및 정부기관과의 작전수행을 원활히 하기위한 통합된 훈련체계가 요구되며, 이러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기동훈련을 실시하려면 고비용의 경비가 소요된다. 고비용의 경비를 들여 대부대를 통합하여 훈련한다는 것은 국가경제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경제적이면서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군 구조는 슬림화하고 고기능 기술집약적 군으로 개편하여야만이 유사시북한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따라서 적과 접촉하기 이전에 적을 정밀 정찰 및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찾아내고 이를 타격하여 마비시키거나 격멸 또는 무력화한 후 우세한 기동력으로 결정적인 지점에서 상대적 전투력 우세를 달성하여 승리를 쟁취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전투수행개념을 보장하기위해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NCW 체계하의 전투수행이다. 즉, 미래 전투수행방법은 네트워크로 모든 무기체계를 연결하여 전투를 실시함으로써 그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소전투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정예강군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전투수행개념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네트워크 체계하에서의 신속결정작전, 효과중심작전, 정밀타격전, 로봇전, 우주전

등이 등장한 것이고, 이러한 네트워크와 고도의 과학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적용한 교육훈련방법으로 과학화된 훈련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래 전투수행개념에 부합되는 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군인을 기술군에 적합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공간을 확보하여 훈련하여야 하나, 각종 여론으로 인해 실사격, 실기동훈련장의 확보는 물론 훈련까지도 어려워지고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대체할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 할 수 있는 새로운 훈련체계로 실전과 같은 교전효과를 묘사할 수 있는 마일즈 교전체계(실기동 교전체계; Live System)와 사이버상의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실전적 교전체계(모의장비 훈련체계 VirtualSystem), 그리고 위게임(구성; Constructive System) 등을 활용한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각각의 실기동(L) 훈련체계, 모의장비(가상현실;V) 훈련체계, 위게임(구성;C) 훈련체계를 활용하는 개별 또는 연동에 의한 실전적인 교육과 훈련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화 훈련의 기본 목표는 교육훈련의 기본목표인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한다."는 명제를 제한된 공간과 여건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구현하는 것이다. 그 훈련 방법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의 과학화,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 장비개발을 통한 훈련방법의 과학화, 훈련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 과학적 장비에 의한 전투실험 등을 통하여 교리를 개선하고, 이렇게 개선된 교리에 따라 학교 및 야전부대의 교육훈련 및 교육지원 체계의 과학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과학화 교육훈련 용어 설명

구 분	용 어 개 념
사이버 교육	○ 현실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에서의 교육, 학습 활동
e-러닝	○ Off-line 및 On-line 상에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학습방법(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과학화 교육훈련	○ 디지털, 네트워크, 사이버, 가상현실, 원격화상, 원격 교육 등 첨단 정보화·과학화 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CBT	○ 정의 : 컴퓨터 기반^{xiv} 교육훈련(교과목형 CBT) ○ 범주 : 교과목형 CBT(C, V체계의 CBT는 제외) ※ 광의의 개념 : 컴퓨터훈련, 협의의 개념 : 프로그램 ※ CBT(Computer-Based Testing) - 비디오 강의 등과 같은 쌍방향 대화방식 특징
LVC	○ 정 의 : L, V, C의 서로 다른 교육훈련체계(시뮬레이션, 실기동 보조장비, 통신기술, 로봇기술)의 연동체계를 통하여 전장지역을 합성하고(공통상황도 생성) 3차원의 가상 합성 전장환경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체계 ※ L(Live System) : 물리적 환경하에서 작전 시스템이나 기반체계를 운영하는 분야 ※ V(Virtual System) : 시뮬레이터(에뮬레이터) / 합성 환경하에서의 작전시스템을 운용하는 분야 ※ C(Constructive System) : 실기동 참가자, 지휘관 참모 훈련자들이 위게임 합성환경에 의해 구성된 환경 내에서의 행위들을 시행하는 분야
과학화 교육훈련 기반체계	○ 정의 : 과학화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이 되는 체계 ○ 범주 : 네트워크, 원격교육센터, 전자도서관, 디지털 교실 등

과학화 교육훈련 발전방향의 목표는 과학적 훈련방법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실전적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는데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교육과 야전훈련의 핵심은 개인과 부대의 미래 전투수행능력 구비에 있으며 병력은 전투전문가 부대는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특히 발전방향으로는 훈련목적 및 훈련체대에 맞는 과학화 훈련체계 발전으로 전투전문가 육성은 학교교실 디지털화를 통한 멀티미디어에 의한 교육과 작전수행능력은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합성전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지원은 교육훈련 포탈 구축을 통한 강한전사, 강한군대 육성에 있겠다.

<표 3> 교육훈련방법 과학화 및 활용

교육훈련방법 과학화	과학기술 활용
○ 전투전문가 육성 - 체험, 토론, 실습교육 ≡ L, V, C 교육 - 이론교육 ≡ 원격교육 확대 - 자기개발 ≡ 온라인상 평생학습체제 ○ 작전수행능력 배양(합동 / 합동작전) - 실기동훈련 : L, V, C 교육훈련 - 실사격훈련 : L, V, C 부분연동훈련 - 주특기훈련/장비운용, 정비능력 등 : V체계 훈련	○ 합성전장체계 구축 ○ 영상 / 체험(실습) 위주 교육훈련체계 ○ 원격교육체계 구축 ○ 교육훈련 지원체제의 전산화, 자동화, 네트워크화

과학화 교육훈련의 발전개념은 첫째, 전투전문가 육성으로 복무기간 고려 이론교육은 원격교육으로 확대 대체하고, 소집교육은 실습형 행동화 교육을 강화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실기동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공간과 실기동훈련장이 합성된 합성전장훈련체계를 갖추어 나가야겠다. 교육훈련지원 발전방안으로 부대, 학교 교육훈련 포털 구축을 지원하고 전자도서관, 지식검색 체계 등 DB서버 연동을 통한 통합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의 발전방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표 4> 학교교육 발전방안

구 분	교육내용	교육방법	기반체계
전문화 교육	○ 첨단 무기체계 ○ 협동/합동작전	○ 소집교육 ○ LVC 교육	○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터 등
디지털교실	○ 과목 영상교육 ○ 실습형 교육	○ 사이버실습 ○ 지식검색	○ 교육 디지털화 ○ 네트워크 구축
원격교육	○ 이론/원칙교육 ○ 단순숙지	○ 사이버교육	○ 통합전자도서관 ○ 원격학습관 ○ 학교교육 포털
자기진단 학습	○ 신분화 교육	○ 사이버 진단	

※ 학교교육 과학화를 통한 군인화, 신분화, 전문화 교육

구 분	L체계	V체계	C체계
사단급 이상			창조21
연대급	KCTC		전투21
대대급	이동형	전술훈련용	
중대급이하	마일즈	개인훈련용	
비 고	○ 제한된 훈련공간을 극복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서 가급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기동 중심으로 훈련 실시하되 V, C체계를 연동하여 전장지역의 제한을 극복하면, 다수의 제대가 참석한 제병협동 및 합동훈련실시		

※ 합성전장훈련을 통한 실전적 훈련

2.4 전시 작전환경 및 북한군 위협

2.4.1 전시 작전환경

작전환경이란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과 주변의 상황으로 작전지역의 특징, 군사적 위협, 주민성향, 무기체계 등이 포함된다. 전시 한반도에서 특수작전을 위한 작전지역의 특징과 위협을 분석해보면 첫째, 지형은 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라 전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코소보전의 교훈을 보더라도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과 울창한 산림은 첨단기술과 재래식 방법의 혼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지형은 피아 양측에 상대작전 이점과 불리한점을 제공하지만 이를 전장에서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작전부대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불리한 지형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북한의 영토는 약 80% 이상이 산악지대로 대부분 1,000m~2,000m의 높은 산과 험준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황해도와 평안남도 일부지역은 대체로 구릉과 높은 산지·분지 및 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가와 인

접해 있는 산악지역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산나물 채취 및 화목연료 획득을 위한 벌목으로 자연적인 황폐화 및 민둥산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 지역의 분수령이 되는 함경산맥 등이 동해안쪽으로 치우쳐 있어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짧고 급류가 많으나, 기타 하천은 길고 완만하다. 하천은 길이에 비해 유역면적이 크며, 동계는 북쪽으로 결빙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하천은 지대가 높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것이 많다. 동해안은 대체로 해안 굴곡이 적으며,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의 급경사면이 해저로 계속되어 수심이 깊고 암석 절벽지대가 많다. 해변은 모래사장이 대부분이나 산맥이 해안 가까이 위치하여 중심이 짧고, 섬의 수는 적고, 그 규모가 작다. 조수간만의 차는 30~60cm로서 적다. 서해안은 해안 굴곡이 심하고 해변은 대부분 갯벌로 형성되어 중심이 길며 비교적 많은 섬이 산재되어 있다. 조수간만의 차는 평균 5~7m 정도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나 간만 시 유속은 시속 2~4knot이다. 둘째, 지형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산악은 험준함으로 인해 장애물 설치가 비교적 곤란하고 관측과 사계가 제한되어 화력운용 효과가 감소되며, 기동의 제한으로 적의 추격 및 수색활동을 곤란하게 하여 도피 및 잠적, 생존활동에 유리하다. 다만 민가와 인접해 있는 주민활동이 예상되는 산악지역은 은폐 및 엄폐에 불리하고 작전활동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특수작전부대는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작전활동시 주요 능선과 산맥은 침투 및 방향유지에 유리하고, 저명한 고지는 통신운용과 침투 및 작전시 참고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험준한 산악은 지형의 차폐에 따른 통신운용의 제한과 기상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동계 생존물 획득 제한 및 생소한 지형에서의 방향유지 곤란 등으로 작전활동에 많은 제한을 준다. 북한의 하천은 일반적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깊숙이 발달하여 스노클 등을 이용한 침투시 용이할 수 있으나, 서해안 지역은 갑문의 설치로 제한을 준다. 특히 대동강의 경우는 12월 중순부터 익년 2월 하순까지 약 82일 간의 결빙으로 선박운항 및 수중 침투에 많은 제한을 준다. 동해안은 급경사 지역이 많아 접안지점 선정에 불리하나, 일단 접안에 성공하면 짧은 모래사장을 통과하여 곧바로 산악지대를 이용한 침투가 용이하므로 잠적 및 생존에 유리하다.

또한 자선침투시 조수에 의한 유속~~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섬이 작고 많지 않아 해상에서 은폐 및 엄폐효과가 제한되며 방향유지가 곤란한 단점이 있다. 서해안은 섬이 많고 해안이 완만하게 형성되어 접안지점 선정에는 유리하나, 조수간만의 큰 차이로 인하여 제한을 준다. 따라서 침투시 만조를 고려하고 일단 접안에 성공하면 대부분이 산맥의 해안에서 내륙을 향하는 종격실을 이루고 있어 목표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빠른 유속을 효과적으로 이용시 자선침투는 용이하나, 방향유지 제한에 따른 계획된 접안지점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기상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모든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특수작전 부대는 비교적 장기간 적지중심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기상에 관한 체계적인 첩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작전의 성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기상조건이 작전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계획수립시 반영하고 작전실시간 불리한 악기상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계절의 특징으로 이른 봄에는 기압배치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아 갑작스런 추위를 몰고 온다. 4~5월에는 해상에서 기상이 양호한 날이 많아 해상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는 반면에, 해무 일수가 증가된다. 또한 황사현상과 내륙지방의 안개는 연중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계절이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최고 30℃를 상회하고 비가 가장 많이 내린다. 7~8월, 빈번한 장마전선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는 하천수위를 증가시키고 산악지역에서는 산사태를 야기시키며, 내륙지방에서는 오전 안개가, 해안에서는 6~7월에 해무가 자주 발생한다. 가을철에는 맑은날을 볼 수 있는 날이 많고 시계가 양호하며, 해안과 내륙지방에서는 해무가 자주 발생하지만 소산은 빨리 이루어진다. 9~10월은 해상의 기상 및 시정이 양호하여 해상활동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지만 11월에는 강풍형상이 빈번하다. 북부지역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순까지는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며, 이 시기에는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갑자기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초설이 내리기도 한다. 또한 10월은 연중 일교차가 가장 크다. 동계에는 최저기온이 -20℃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 따라 이

동이 제한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한다. 특히 한랭지대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기압권 내에 있을 경우 일몰 40~50분 전부터 일출까지 한랭기류가 고지에서 저지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륙지방에서는 강한 북서 계절풍이 불지 않을 때 안개가 낄 경우가 많으며, 연중 해상 기상이 안 좋은 날이 가장 많은 계절이다.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관련 북한 동북부 산악지역은 한반도 겨울철 평균 기온보다 지역별 최고 $-20^{\circ}\text{C} \sim -10^{\circ}\text{C}$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영하의 기온하에서 작전활동은 급격한 체감온도의 저하를 유발하고, 노출된 피부나 장비는 동상이나 기능장애로 작전활동에 심리적인 위축과 전투의지를 약화시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기온관련 산악지역에서 환절기의 이상기온은 급격한 체력저하로 인한 비전투손실을 유발하여 작전활동을 방해하고, 또한 지속적이거나 급격한 영하의 기온은 전자장비의 기능저하와 건전지 수명을 단축시키며, 동결된 장비 및 보급품의 기능마비 또는 파손 가능성이 높아 지휘통신 및 우발상황시 즉각적인 행동에 제한을 준다. 바람관련 작전활동시 발생하는 소음을 상대적으로 작게하여 작전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약한 바람은 소음을 멀리, 그리고 빠르게 전파함으로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구름관련 산악지역에서는 낮은 구름이 관측과 사계를 제한하고 작전활동간 방향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나, 위성항법장치(GPS)가 가용하거나 방향유지 능력이 갖추어졌다면 주간침투시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구름의 증가는 공중침투 자산 운용에 제한을 주기도 한다.(특수작전, 2013:4-9) 소결론으로 북한군은 기상과 지형면에서 국군보다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기상면에서는 북쪽지역이 남쪽지역보다 $-10^{\circ}\text{C} \sim -20^{\circ}\text{C}$ 정도 춥기 때문에 북한군이 동계에 남침시 남한지역이 북쪽보다 따뜻하게 느껴져 전투하기가 쉬워지며 반대로 국군이 동계에 북진시에는 남한에서의 온도보다 추워서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6.25때 장진호 전투에서도 우리 국군이 겪었던 일이다. 또 지형면에서 남한의 산은 보통 500~1000m고지대인데 비해 북한은 1000~2000m의 고지대로 첨단무기의 효율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지형으로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는 북한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리하다고해서 전투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상과 관련해서는 동계 적응훈련을 잘하고, 산악지형에 맞는 비대칭 무기가 충분히 확충된다면 충분히 승산있는 방어를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4.2 북한군 위협 및 대비책

전략·전술변화로 북한은 기존 대남 군사전략의 특징인 기습전략, 배합전략, 속전속결전략의 근본적 변화는 없으나 오늘날 북한의 현실과 피·아전투력 등을 고려시 전략·전술은 일부 변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전 수행능력의 열세와 낙후된 장비 및 열악한 전쟁수행능력을 극복하기 위해 특수작전부대와 남한내 동조세력을 이용하여 혼란조성과 동시에 핵 및 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를 이용한 전략목표의 타격과 대규모 정규군의 전선돌파를 동시에 추구하는 배합전략을 시도할 것이다. 과거 북한의 테러 및 테러지원 사례와 2010년 서해상의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양상이 다양화되고 있고, 최근의 대규모 특수작전부대 및 해커부대 창설 등도 비대칭 위협의 단편적인 양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군의 핵심 전력인 핵을 포함한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활용을 위하여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추가적인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기습·속전속결전략으로 북한은 연합전력의 증원 이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습·속전속결전략을 전쟁수행의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방은 집단군 중심의 부대편성과 경보병 사단을 추가 편성하고, 더불어 기갑 및 기계화 사단의 복종변경을 통해 기동력을 대폭 보강하였다. 비대칭 전력위주 전략·전술관련 북한은 경제난으로 심화된 남북한의 국력차이, 외부의 북한지원 여건, 한미 연합군 대비 상대적 열세, 내부 통제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에게 불리한 전면전이나 지구전보다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대량 살상 무기와 장사정 포병, 잠수함, 대규모 특수전 부대, 사이버전 등의 비대칭 전력을 운용할 것이다. 이중 대량살상무기는 전략적 위협수단으로서 결정적인 시기에 정치·군사적 국면의 전환을 위해 이용할 것이며, 미사일, 장

사정포, 특수전부대 등은 전략목표⁸⁾ 타격하거나 후방지역을 교란 및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여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고 우리의 전쟁의지를 약화시켜 전쟁을 조기 종결하려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비대칭 전력은 평시에도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회혼란 조성과 특정지역을 점령하거나 화력도발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대규모 배합전략 관련 다양한 특수작전부대의 사전 침투로 핵심전력의 파괴와 기능마비, 인구 밀집지역의 폭탄테러, 화학탄 공격 등 대량살상을 시도하고 정규전 부대와 배합전을 통해 비대칭전선을 형성하여 우리군의 분산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남한 내의 중북세력과 반미·반정부 세력을 규합하여 요인암살과 테러, 폭력시위 및 반정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등 지하조직의 활동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김일성은 1969년 1월 군당 제4기 4차회의에서 ‘경보병은 원자탄보다 위력이 있다. 경보병 부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후방에 침투된 1명의 경보병 요원은 일반 병사 10명과 맞먹는다.’(북한총람 : 1983) 김일성의 경보병 부대에 대한 애착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특수부대 요원의 훈련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군 특수전 부대는 최초의 경보병 부대 창설(1965년), 제124 군부대 창설(1967.3월), 특수8군단 창설(1969.1월)에 이어 1983년 7월에는 특수8군단을 정보교도 지도국으로 변경하여 특수전 부대를 통합하였으며 현재는 총 25개 여단 60여개 독립대대로서 약 12만여명(8만~12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7일(2006년) 미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과 10만 특수부대 등 비(非)대칭적 군사위협 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도 장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규모와 전진배치 면에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전 부대 10만명은 북한 정권의 최우선 투자대상이다. 잘 훈련되고 충성심이 강한 이 부대는 평시엔 정권지원을 위한 불법 활동과 전략적 정찰 등의 활동을 하고, 전시엔 한반도 외부로부터 동맹군의 증원차단, 한미연합사 지휘시설 파괴공격, 한국의 핵심시설 타격 등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xxii

전체 지상군의 약 14%에 해당되는 정예부대를 보유, 평시에는 상대국에 대한 정탐 및 테러행위를, 전시에는 적 후방교란 및 제2전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 및 전략적 운용부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그들의 교육과정과 내용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 등에서 유추해 보면 일반적으로 테러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테러목적에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 우리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본 내용은 「북한군대 해부」(황금알, 이민룡), 「흔들리는 북한군」(생명의 숲, 임홍균), 「국방백서」(국방부, 1998~2004년) 재인용 및 탈북자 증언, 공개된 자료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북한군 비(非) 정규전의 특징으로 뉴스위크지가 북한의 특수전 부대 전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다.(2003.2.20일판) 북한이 워낙 패쇄적인 국가여서 군사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묘책은 없었으나 귀순한 군인 또한 탈북자들로부터 몇 가지 사실적 행태를 통해서 북한군의 모습을 투시해 본 것이다.

최근 비밀해제 된 미군의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최소 5만여 명의 북한 특수전 부대원이 연합군 후방에 침투하도록 돼 있다. 소형 잠수함이나 한국국적을 위장한 헬기, 또는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AN-2기 등으로 침투할 것으로 추정된다. 후방에서 이들의 임무는 지원군 유입차단, 탄약고 및 연료창고 파괴, 기간 통신망 파괴 등이다.”

북한군의 비(非) 정규전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비(非) 정규전 전략은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구분하고 비정규군 즉 게릴라부대에 의하여 수행되는 비정규전을 정규전과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관점에서 수용한다.

둘째, 게릴라 전력을 현대 비정규전력화 함으로써 군사적 성격의 게릴라전과 정치적 성격의 게릴라전에 공히 운용한다는 양면성을 가진다. 군사적 성격은 후방교란 및 병참선 파괴 한국군의 주 전력을 분산 약화시키며 정치적 성격으로는 인민대중, 정부, 군을 이간, 한국의 전쟁지도체계를

붕괴시킴을 주목적으로 한다. xxiii

셋째, 한국 내부에서 게릴라 활동을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혁명 근거지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제2전선 형성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 또한 이들 부대를 후방작전 전담부대로 통합 편성한다.

넷째, 기본은 혁명전략과 무력투쟁의 배합성에 두고 전쟁은 정권탈취 및 유지를 위한 혁명전쟁으로, 이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기습과 속전속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현재는 점차 정치적 성격으로부터 군사적 성격의 게릴라전 즉, 특수전 부대 작전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켰고 궁극적으로 비정규전력은 북한의 정치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군사적 위협실체로 볼 수 있다.

북한군 특수전부대 임무와 편성면에서

북한의 비정규전 능력은 규모나 훈련의 질적 수준에서 세계 제1위로 알려져 있다. 특수전 부대가 처음 창설된 것은 1969년 ‘특수8군단’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1978년에는 총참모부 산하조직으로 ‘경보교도지도국(輕步教導指導局)’이 만들어져 모든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리 및 훈련을 시행하게 되었다.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①총참모부 경찰국 ②정보교도 지도국 소속 특수부대 ③해군소속 해상 저격여단 ④지상군 사단소속 경보대·경찰대·민경대 등이 있다.

지금은 총 22개 여단 및 25개 대대와 규모 미상의 부대전력으로 편성되어 있다.(동북아전략균형, 2001) 병력수로 보면 대략 10만여 명으로 추산되어 지상군 병력의 1/10 수준이며, 부대전력에서는 총 108개 여단에서 2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수전 부대의 편성을 살펴보면 총참모부 예하의 정보교도지도국이 직접 지휘하는 9개의 여단이 있고, 지상군 군단에 11개 여단, 공군에 3개 여단, 해군에 2개 여단, 그리고 경찰국에서 5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당비서국에서 직접 지휘하는 규모 미상의 특수부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대(對)남 공작을 수행하는 노동당 대남사업 담당비서 예하에 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 등의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 특수전부대 요원들이 ~~배치~~ 편되어 있다.

총참모부 정찰국은 군사정보기관으로 요인납치, 암살, 기밀문서 탈취, 핵심전략 시설물 폭파, 간첩임무, 전략시설 정찰 등을 수행하는 공작기관이다. 정찰국은 1996년 ‘강릉무장공비사건’과 1982년 미얀마 ‘아웅산 묘지폭파 사건’도 정찰국 요원의 소행으로 알려져 왔다.

정찰여단은 유사시 전투지역 후방으로 침투하여 한미연합전력의 방어작전을 교란하고 전술표적을 선별적으로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후방지역에 있는 교량이나 터널, 댐, 발전소 등 주요 산업시설을 점거하거나 전술·전략적 목표를 파괴하여 정규부대의 군사작전을 지원한다. 평시에는 한국지역에 침투하여 첩보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찰국 직속 5개 정찰대대에 24정찰대대가 평양에 주둔 긴급사태 대비 및 외국사절에 대한 집체격술 시범 등 예비임무, 69정찰대대는 해외침투전담대대로서 특히 오키나와에 빈번히 침투 71, 72, 73정찰대대의 경우 전방군단 예하 정찰대대와 훈련방식이 유사하고 강하훈련을 많이 하며 각 대대는 약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연(전방배치) 군단 소속 4개 정찰대대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대대의 핵심인 강습소 소속 제1-12작전조는 침투 준비조를 의미하며 평시에 대남침투 정찰부대로 선발된다. 이 부대는 강원도 평강군에 2개 대대 개성과 황북 시천에 각각 1개 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대대는 500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정찰국 해상처 소속 정찰부대 및 해·공군 배속 정찰대대는 정찰국 해상처 예하에 1, 2, 3기지(각 기지 300명)와 22전대가 있고 이들 해상침투 기지에도 잠수함, 고속간첩선, 반잠수정, 수중추진기 등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해군과 공군에 배속된 정찰대대도 있다.

경보여단은 북한 후방에서 한미연합군의 공수부대 및 특수전 부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대(對) 침투작전 정규군단의 공격을 선도하는 선견대 역할을 한다. 전방 중요시설 타격 혹은 장악임무, 군단의 기동예비대 역할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육전여단은 공수작전을 의미하며 단순한 타격임무가 아닌 점령 및

확보작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전략적 중요지형 및 기반시설을 사전 장악한다.

공군저격여단 한국에 비해 공군력이 열세인 북한이 한국의 공군기지를 집중적으로 장비 및 시설물을 타격할 목적으로 양성한 특수전 부대이다. 저격여단은 유사시 전선을 돌파하여 후방교란 목적으로 침투되는 부대로서 30세 미만의 청년군관으로 편성되며 60% 정도는 부사관급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여군들도 편성되어 있는데 일명 ‘모란꽃’소대로 불리우는 이들 요원은 후방에 침투하여 요인암살이나 포섭,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舊) 정찰여단의 후신이라고 하며 부분적인 공수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주 침투수단은 육상침투이며 해상침투도 가능하다. 국가 전략목표 등 중심 깊은 목표물 즉 C4I 체계, 레이더기지, 공항 및 항만, 군수무기 등 전략시설을 타격한다.

해군 소속 특수부대(해상 저격여단)는 해군기지 습격, 상륙선도임무, 교두보확보 및 통제작전 등 한국 UDT/SEAL 해병수색대를 결합한 해군소속의 특수부대이다.

한국의 해병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륙여단이 해군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의 공수부대와 유사한 부대는 공정 경비병여단이다. 이들의 임무는 한국지역의 공군기지를 습격,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것이다.

또한 산악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유격전을 전개한다. 제병연합으로 편성된 혼성여단도 있는데 이들은 휴전선 지역을 강습 돌파하거나 후방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축선을 형성하여 정규군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군 특수전부대의 임무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전력 및 시설의 파괴이다. 적 지역에 침투하여 핵심적인 공격전력으로 간주되는 기지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군의 공군기지, 미사일기지, 레이더 및 방공망, 유류저장소, 발전소 등을 파괴하여 자국(북한)의 공격작전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정규 작전부대의 공격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정규부대의 작

전을 지원하기 위해 측면공격이나xx위공격을 수행한다. 주요 병참선을 보호하는 작전이나 지형지물을 확보하여 공격작전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후방지역 비정규전을 수행한다.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전면 전쟁 시에는 한국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일정지역을 탈환하여 기지로 삼을 수도 있고 불리할 경우에는 산악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한다.

넷째, 국제 테러활동을 주도한다. 평시작전으로서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등지에서 테러활동을 전개한다. 1983년 ‘아웅산’ 폭파사건이 특수8군단 산하의 정보병 부대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며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습격도 이들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제3세계 지역에 북한의 군사고문단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 역시 특수전 부대원이 주축을 이룬다고 한다.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중 특수전 부대 요원 선발은 북한 헌법상 병사의 복무연한이 3년 6개월이나 실제 특수부대 요원의 평균 복무기간은 11~12년이다. 이때 만 17~20세까지 고등중학교 이상 졸업자 중 성분이 양호하고 신체 건강한 자(전시는 17~45세), 대학교 3학년 이하 재학자 중 입대 희망자 중에서 신체 건강한 자, 직장근무자 중 23세 이하로서 직장에서 추천된 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성분, 신체적 조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순위는 비행사와 잠수함 근무, 다음으로 경찰국과 호위국 그리고 저격병, 정보병, 해군, 일반 보병 순으로 선발. 특수전 부대 요원 선발의 기본은 성분과 신체적 조건에 우선권을 두고 부대목적에 맞는 최정에 전투원을 양성한다.

북한의 정예병사 중 가장 우수한자들로 엄선되며 노동당 당원 중 사상교양이 투철하고 신체조건이 뛰어난 자들로 과감성, 인내성, 이념, 정신력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부대 병사들보다 우수하다.

특히 북한군 특수전 부대 요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명령만 내리신다면 폭탄을 안고 적진에 투하 하겠다”는 맹세문을 매일 암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전 특수부대요원 최승진 증언)

특수전 부대 개인훈련으로 신병교육을 받은 군복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1~2개월 정도 받은 후 ‘군인선서’를 하고 정식 군인이 되며 적성검사 후 기초 특수부대 훈련은 12~24주 또는 그 이상 실시하는데 기초전술과 작전에 목적을 두고 실시, 특히 특수 전투기술과 정보작전 교육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상을 중요시하며 기본은 김 부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이며 혁명역사 및 사상과 혁명전통 고양 등 당성, 혁명성, 계급성 등 교육과 총폭탄 정신, 3대혁명 붉은기 쟁취 등과 같은 사상동원과 특수전 부대 요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폭정신을 전쟁관점으로 무장시킨다.

개인훈련시 중요시하는 것은 사격과 편제화기 조작으로 백발백중의 명사수 양성과 한국군 및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 및 총기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과 특수체육으로는 격술, 단도조법, 창격전, 보병삽조법, 특수조법, 격술 등이다. 일반부대에서 진행되는 달리기 훈련은 100m, 800m, 1500m, 장애물 극복 등인데 특수전 부대원들에게는 마라톤, 발고랑 뛰어넘기, 모래조끼와 모래각반을 착용하고 달리기, 무장달리기, 산악극복 달리기, 야간 달리기 등 적 후방에서의 추격대비와 단독 및 조 단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달리기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20~30도의 경사지에서 진행되는 일명 할딱고개 오르기는 5Kg짜리 모래각반을 양다리에 각각 매달고 10Kg 모래조끼를 입은채 소대장이나 조장의 구령에 따라 달리게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20Kg 되는 모래짐을 벗어놓으면, 평시에 4~5개씩 뛰어넘던 발고랑을 7~8개 정도는 거뜰히 날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산 권총과 AK 자동소총, 단도, 포승, 작전배낭(국군복장일식, 예비식량, 지도, 개인천막, 예비탄약 등), 방독면, 보병삽, 탄창주머니와 같은 무장 장구류들을 소지하고 진행하는 무장 강행군은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훈련의 하나라고 말한다.

특수전 부대 부대훈련은 총참모부의 연중 교육강령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훈련으로부터 야외 종합훈련 실시 정규전 및 비정규전의 배합, 산악작전, 공정작전 등 각종 특수전 수행을 가능토록 편성 및 장비되어 있으며 군사정찰과 침투, 매복, 습격, 파괴 및 후방교란 등 비정규전 전술에 중점

을 두고 훈련한다.

xxviii

북한군에서의 천리행군은 특수부 전부대원들이 자랑하는 최악의 고된 훈련이다. 천리행군은 한번 하고 나면 피와 땀과 눈물과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혹독한 훈련이다. 매년 기동훈련의 기본과제에 포함되는 천리행군은 특히 특수전 부대원들의 필수과정이기도 한데 대체로 이 훈련은 겨울철에 진행된다. 훈련에 대한 최종 판정은 인민무력부 작전국과 전투훈련국에서 받는다.

특히 특수부대원들은 독도법에 능숙해야지만 노정과 거리, 시간 등의 계산을 정확히 해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 이들은 황해남도 평산과 곡산, 평안남도 양덕을 비롯한 북한 각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판정장소를 최종 도착지로 정하고 그로부터 1,000리(400Km)가 되는 점을 출발점으로 지정한다. 명령을 받은 각 부대는 행군로를 설정하고, 인민무력부에서 파견된 평가원들의 감시하에 행군을 시작한다.

행군도중에 각종 전투상황 부여, 적기공습, 핵 및 화생무기 투하지점 극복, 화재, 적군의 매복, 야간 습격전, 수중도하, 추격전, 진지방어전 등과 숙영, 학습, 무기 및 전투 기술기재의 관리와 같은 내용들을 숙달해야 하며 한명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진행된다.

하루 행군이 끝나면 3명 1개조 단위로 식사를 해결하고 눈이 가장 많이 쌓인 골짜기에 비트를 파고 개인천막으로 위장을 하고 잠을 자야 한다. 결국, 이렇게 보름간의 행군이 끝나는 날이면 거의가 체중이 3~4Kg씩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특수부대원은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 탱크, 열차도 조종할 수 있게 훈련되어야 한다. 각종 운전기재에 대한 조종훈련은 북한군에서 취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미국, 일본 지프, 한국군 군용트럭, 승용차, 탱크, 장갑차, 각종 항공기, 모든 함선 및 함정, 기차 등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공수훈련은 태천과 평양 동부의 비행장 및 공수시설에서 기본 강하훈련부터 중·고공 자유 강하훈련까지 실시, 숙달자는 고공강하(HALO) 훈련도 받으며 일부 부대는 글라이더, 초경량 항공기 및 기구 훈련도 실시한다.

1996년 강릉 침투사건 당시 체포된xx광수는 특수전 부대 요원의 훈련실태를 증언한 바 있다. 개인이 3~15명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루 3시간 이상, 사격 3,000번 이상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1일 30분 이상 단검 투척훈련, 25Kg의 군장을 메고 하룻밤에 40Km, 주야로 120Km를 주파할 수 있는 강행군, 400m의 강물을 30분에 횡단, 400m의 높이에서 공중 강하하며 200m 거리의 지상표적을 명중시키는 등의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북한총람:2003)

그야말로 가공할만한 수준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특수전 부대 전력이 유사시 한국의 후방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심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군 특수전 부대의 취약점은

첫째, 배합작전을 실시하는 특수전 부대는 중심 깊이 침투하여 활동하는 부대로서 생존성 보장을 위해 소규모로 분산 활동하고 목표 습격시에는 병력을 집중하여 타격활동을 실시한다.

둘째, 임무특성상 장거리 신속침투를 위해 식량과 탄약 등 각종 휴대품목을 최대한 경량화 하고 한국군 후방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수전 부대에 대한 후속 보급지원이 곤란하여 작전 지속능력이 결여된다.

셋째, 아군 후방지역에서 부대가 분산 및 노출된 상태에서 운용되므로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가 곤란하고 각개격파에 취약하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 운용 전망 및 대비책은

북한의 특수부대 전력은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오른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1992년 5월 ‘저격, 경보 분대조 훈련을 강화하여 싸움을 빨리 끝낸데 대하여’, 1996년 5월 ‘인민군대내 저격, 경보 등 특수부대는 무조건 이동, 야외훈련을 실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달하고 훈련을 독려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1996.9.25 일자)

북한군의 배합전략은 구 소련군의 정규전략과 모택동의 유격전략을 결합, 한반도의 실정에 맞게 만든 ‘주체적 전략’으로 여하한 작전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현대전 수행원칙중 하나로 상대적 전투력 우세와 주도권을 확보 ‘전후방 동시제압’을 통한 ‘속전속결’을 최고사령부로부터 말단

하급제대까지 적용을 강조한다. xxx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육상, 해상, 공중, 땅굴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지휘 및 통신시설 파괴(C4I), 병참선 차단, 비행장 등 주요시설 타격, 전방증원 차단, 요인 암살 등으로 우리의 전쟁 지속능력을 파괴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등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국방백서, 2004)

특수전 부대는 강력한 작전동기와 투철한 정치적 사상(수령 결사옹위, 총폭탄 정신)을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훈련되어 전면전, 국지도발과 병행, 항공기, 주요시설, 화학 및 생물무기 운용, 자살 공격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수단으로 운용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비방향은

첫째,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구축, 총력전 개념으로서 군사력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 지속능력 보장을 위하여 제작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협조시켜 작전수행을 해야 한다.

둘째,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들은 가스, 통신, 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과 파괴를 통해 사회질서 혼란 및 도시기능을 마비시키려 할 것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출입구 패쇄 또는 접근 차단대책 등 경계태세 및 보안대책을 평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요 해·공군 기지에 대한 자체 방호대책을 강구하여 최초 적 특수전 부대의 기습공격시 자체 기동타격대를 즉각 출동시켜 적을 고착시켜 놓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 부대가 소탕작전을 실시한다.

넷째, 자살공격용 테러 및 생화학무기 이용 테러 행위 등 그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 전쟁 수준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완벽한 대테러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對) 테러전은 정보전이라 할 수 있는바 전 세계인들에게 테러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포괄적인 정보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조기 정보태세 확립 및 초기 격멸대책을 강구하여 적 특수전 부대의 침투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 작전 요소들에게 적시적으로 전파해 줄

수 있는 조기 경보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며 작전반경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의 침투원점에서 격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쟁 억제능력 조기확충이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조기에 구비하여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며 예비전력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직을 정비하고, 향토방위 긴요물자를 조기 완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 특수전 부대의 심대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김선호, 2006:1-10)

2.5 특수작전 교육실태 강점과 약점

특수작전 교육은 개인훈련인 사격, 특전체력, 주특기로부터 팀훈련인 전술훈련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개별적인 훈련은 우수하게 잘 이루어져 왔으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스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특전사령부에서 2013년 들어 이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차별 요망수준이라는 것이 만들어 졌다. 이것은 특전대대를 대상으로 현 수준(중대장, 부중대장, 부사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그 종합된 결과를 기초로 각 직책별 특수요원의 연차별 전투력 요망수준 기준을 <표 6, 7, 8, 9>처럼 제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전사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강점으로 대다수 특전요원 개인 전투력이 우수한 반면 약점으로 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병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다된다. 요즘 전입오는 인원의 기본 자질 부족으로 10여명의 팀원중 1~2명이 교육훈련을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것이

<표 6> 특전대대 중대장 특급전사 요망수준 도달여부

구 분	계(15명)	1년차(5명)	2년차 이상(10명)
개인 전투력	1 (7%)	·	1 (10%)
편 제 장 비	7 (47%)	2(40%)	5 (50%)
공 통 특 기	2 (13%)	·	2 (40%)
태권도 / 특공무술	1 (7%)	·	1 (10%)
강 하 조 장	10 (67%)	·	10 (100%)
합동화력통제	6 (40%)	미해당	6 (60%)

* 개인전투력, 특공무술 요망수준 도달저조

<표 7> 특전대대 부중대장 특급전사 요망수준 도달여부

구 분	계(7명)	1년차(5명)	2년차 이상(2명)
개인 전투력	·	·	·
편 제 장 비	2 (29%)	1 (20%)	1 (50%)
공 통 특 기	·	·	·
태권도 / 특공무술	1 (14%)	1 (20%)	·
강 하 조 장	·	·	·
합동화력통제	2 (29%)	1 (20%)	1 (50%)

* 개인전투력, 공통특기 요망수준 도달자 없음

<표 8> 특전대대 부사관 특급전사 요망수준 도달여부

구 분	계 (182명)	1년차 (52명)	2~3년차 (43명)	4~5년차 (29명)	6~9년차 (12명)	10년차이상 (46명)
개인전투력	22(12%)	1	12	3	1	5
주 특 기	73(40%)	2	37	13	10	11
공통특기	87(48%)	·	·	29	12	46
부 특 기	·	·	·	·	·	·
태권도 / 특공무술	36(20%)	5	13	1	1	16
강하조장	44(51%)	·	·	3	6	35
특수전전문	48(54%)	·	·	3	13	32
특수전고급	31(67%)	·	·	·	*	31
전문 학사	89(83%)	8	31	5	7	38
기 타		·	특전의무:5	인명구조:1	인명구조:5	인명구조:30 산악전문:8 군사영어:3

* 개인전투력, 공통특기 요망수준 도달자 없음

<표 9> 연차별 요망수준

xxxiii

구 분			보직前(전입시)	1년차 이내	2년차 이상
개 인 훈 련 (7)	특전체력		육군체력 2급	3급~2급	2급~1급 ↑
	개인화기		70% ↑	70~80%	80~90% ↑(교관)
	특공무술			1단(필)	2단 ↑(필)
	태 권 도			1단(필)	2단 ↑(선)
	특전기본			70~ 80%	80~90%↑(교관)
	편제장비		70%	80% ↑	90% ↑(지도)
	공 통 주특기	정 작	항공화력유도	80%	90% ↑
		의 무		80%	90% ↑
통 신			80%	90% ↑	
특 수 자 격 교 육 (3)	공수기본		수 료(필)		
	특 수 전		기 본(필)		
	강하조장			수 료(선)	수 료(필)
전 술 훈 련 (1)			작전구상, 작전계획 수립, 상황조치 능력 구비		
검은베레 비전 (1)			행동화 실천 / 팀원 지도능력 구비		
민간(1)	인명구조			수 료(선)	
특 수 자 격 교 육 (9)	고공기본			수 료(선)	수 료(필)
	고공 강하조장				수 료(선)
	스쿠버, 해척조			수 료(선)	수 료(필)
	UDT / SEAL			수 료(선)	수 료(필)
	페러글라이딩			수 료(선)	수 료(필)
	산 약 전 문				수 료(선)
	낙하산 포장		수 료(필)		
	JFCC			수 료(선)	수 료(필)
	비정규전			수 료(선)	수 료(필)

※ 검은베레 비전과 연계 자기계발 : 국내외 위탁교육, 영어 등

다. 1~2명이 뭐 문제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팀단위 작전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예를들면 적지에서 적과 조우시 도피를 하는 과정에 체력 저조자가 적에게 포로가 된다면 나머지 팀원의 생존은 물론 임무 자체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대 인원중 1명도 특전부사관 양성교육간 체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그만두고 싶었지만 동료와 교관의 권유로 포기하지 않고 임관후 자대에 전입을 왔다가 팀에서 체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자살징후를 보였다. 결국 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00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서야 지역대 본부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부사관 양성소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항의하였으나 확인결과 부사관 지원율이 해마다 떨어져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매년 각 여단에서 원하는 인력수급을 할 수 없다보니 미흡하더라도 임관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 왜 지원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일까. 그 답은 다음장 모병방법 개선에서 하고자 한다. 결국 우수한 자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모병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전시교육 훈련의 강점으로는 과학화된 훈련시설(자동화 사격장 등)을 갖추고 있으나 약점으로는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여 사격훈련을 하다보니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현실감 있는 사격훈련을 시키자면서 동원훈련간 총기 기능고장 조차 뒤에 있는 조교가 조치해주는 형편이며, 또 사격장에서 쏘는 것이 각종 전장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지형에 따라 서서 사격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쏘는 쪽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는데 무조건적인 앞드려싸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전시 동원훈련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과학적 훈련방법의 강점으로는 육군이 지난 2000년부터 2900억원을 투입해 육군 과학화 훈련장을 만들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제 전투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화 전투훈련을 한번 하고 난 특전대대는 전투력이 급상승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지휘 능력도 급상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매복을 하고 어디를 통해서 우회 기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반면 북한의 육군은 전투장비를 운영할 기름도 부족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의 훈련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신 약점으

로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장과 여건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넷째, 우리 군의 훈련장 관련 강점은 북한에 비해 수준이 향상된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이전 및 민유지 반환 요구의 증대와 국민생활 편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사격장 소음, 훈련부대 이동에 따른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되고, 국민의 안보에 대한 관심 저하와 생활불편을 이유로 훈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등 국민적 다양한 요구와 도시화로 교육훈련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훈련시킬 훈련장은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따라 교육훈련의 질이 틀려질 것이다.

Ⅲ. 특수부대의 교육훈련 발전방향

3.1 우수인력 획득 방법

특전부사관은 연간 남군 6개기, 여군 2개기 약 1200명을 모집 및 선발하는데 서류접수후 각 여단별로 1차 선발하고 사령부에서 최종 선발한다. 이때 체력검정(1.5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달리기)은 총점 합격제 적용을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연령은 임관일 기준 만 18세~27세 이하 자이다. 이중 13년 특전부사관 모집계획중 눈여겨 볼점은 비고사항에 특교단 가입대 기간 중 퇴교인원을 줄이기 위해 기수별 여단(단) 모집홍보관이 동참근무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지원자가 많으면 적정수를 도태시키면 될텐데 지원자가 적으니 남은 인원을 어떻게든 많이 남게해서 임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선 좋은 일이겠지만 조직의 입장에서선 좋은 자원을 많이 받아 그중 가장 좋은 자원을 뽑아야 조직이 발전이 되는 것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약 2:1이던 지원이 2010년에는 1:1.3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왜

특전부사관 모집의 비율이 자꾸 하락하고? 또 그것이 전투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먼저 모집비율이 자꾸 하락하는 이유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파병이 없었는데 2000년 이후 해외 파병이 점차 늘어나다보니 계급에 따라 6개월에 많은 수당과 진급점수 인센티브를 받다보니 해외 파병은 3:1 이상 경쟁률이 항상 높다. 그러나 특전부사관은 수입도 적고 (일반 보병부사관과 비교시 수입은 같음, 강하수당제외) 진급도 전방은 0.2점 가점이라도 있는데 없기에 자꾸 지원이 하락하는 것이다. 게다가 훈련은 무지막지하게 힘드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지원율이 떨어지다보니 전투력 또한 떨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초임하사 특공무술 0단을 1단으로 교육시키기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4단까지는 3~4년이 소요되는데 고단자가 되었을때는 이미 전역할때이다. 최초 지원율이 높다면 이런 고단자를 받으면 나머지 전술훈련에 더 매진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다. 추가적으로 밖에서 전입오는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오는 경우에는 SCUBA교육이 쉬울 수밖에 없고, 스카이 다이빙 자격증 있는 인원들이 온다면 고공교육이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보병이라면 가르쳐서 키우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즉시 투입가능한 특전사 요원은 틀리기 때문이다. 가르쳐서 투입하려면 전역하고 또 전입요원이 오면 투입준비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병율을 높일수 있을까? 결국 금전적인 보상이 많으면 가능한데 현 육군의 예산으로는 힘든 상황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팀인원의 반을 부사관에서 병사로 바꾸게 되면 결국 금전보상을 많이해서 우수한 인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나 좋은 방법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3.2 전시 동원훈련 방법개선

전시 교육훈련간 야전부대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 전시 교육훈련 목표면에서 “강하고 실전적인 임무위주의 훈련을 통하여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함으로써 모든 지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는데 있다” 이

것은 부대라는 교육훈련 대상에 초점을 두고 승리를 강조함으로 개념적인 미사어구만 사용하여 구체화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무완수를 위한 실전적 전투방법체득“등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미래전에 걸맞는 목표제시가 될 것이다. 전시 동원부대 교육훈련을 살펴보면 0,0군 보충단 및 군단 보충대대와 0군 보충중대에서 전쟁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0박0일간 실시하는데 전쟁 필수과제를 실시하고 추가교육과목은 임무를 고려하여 실시하고 개인화기 사격이 훈련장 및 장비 제한으로 실시가 제한될 경우에는 여건 가용시 사단 보충중대에 위임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 1,3군 사단 보충중대와 2군 사단보충중대에서는 동화교육 위주로 실시한다. 보충부대 대기기간이 연장시에는 주특기를 포함 전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정 전시훈련을 실시한다. 기타 사항은 부대임무와 상황을 고려하여 사·여단장급 지휘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우리는 60년 군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통적 교육의 환경이 오프라인 아날로그에서 온라인 디지털로, 교육주체가 공급자 전달 위주인데 이제 수여자 참여 체험학습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화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실감 있게 사격훈련을 시키자면서 예비군 교육간 총기 기능고장 조작 뒤에 있는 조교가 조치해주는 형편이며, 또 사격장에서 쏘는 것이 각종 전장실상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지형에 따라 서서 사격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쏘는 쪽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는데 무조건적인 옆드려쐬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런 교육 에 익숙한 부대가 과학화훈련장에 가면 고전하는 이유가 이것이며 적을 발견시 서서 먼저 쏘야한다는 것 등 전장실상을 이곳에 가야만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3.3 실전적 훈련방법

3.3.1 산악지역 침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롬멜(Rommel) 산악전투단의 공격작전(1917.10.16) 제1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군의 뷔르템 베르크 산악대대의 일부를 지휘, 톨마인 공세 제 3일차의 롬멜 산악전투단의 공격전투 성공사례이다. 이 전투에서 이탈리아군 5개연대가 롬멜의 7개 중대에 의해서 섬멸되었다. 전투경과로 1,192고지 및 프르츨리산 공격시 제2중대장 대리 휘겔중사가 이끄는 중대는 연결된 능선을 따라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병력과 화력이 우세한 이탈리아군을 맞아 항상 적을 정면에서 고착시키고 동시에 돌격분대로써 적의 후방을 공격하였다. 선봉인 2개중대가 계속 전진을 하여 10월 26일 08:30에 1,192고지를 탈취하였으나 이탈리아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더 이상 진출할 수 없었고 적은 프르츨리 봉의 동북 방향 800m 떨어진 지점에 대병력을 배치하여 2중대가 점령한 고지에 기관총 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프르츨리 봉의 동북방 경사면을 공격하는데는 최소한 2개 중대와 1개 기관총 중대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롬멜은 판단하고 1,192고지에 병력을 보충하고 포병사격을 요청하여 적을 고착시키고 2개중대를 서측방으로 우회시켜 공격하였다. 이에 이탈리아군은 후퇴 중 수십명이 포로가 되고 독일군에게 투항하는 등 1,500명이 포로로 후송되었다. 다시금 프르츨리산의 서측사면으로 전진하였으나 1,467고지와 1,424고지에서 기관총으로 맹렬히 사격을 가했다. 그러나 롬멜은 기관총 중대로 하여금 적의 엄폐물인 암석에 사격을 실시하여 그 파편이 사방에 비산하는 효과를 통해 적을 퇴각시키는 동시에 신속하게 적을 추격하고 압박하여 소탕하였다. 도로까지 퇴각하여 집결해 있는 적 2연대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였고 포로가 된 연대장은 독일군 이 불과 몇개 중대 규모에 불과한 것을 보고 도로에 주저앉아 그만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적어도 독일군의 대병력이 포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1,467고지 및 마지막 마타주르산 공격시에도 적은 공격을 받기도 전에 투항 신호를 보내왔다. 전훈으로 롬멜의 산악전투단은 52시간에 걸친 산악전에서 계속 선봉대로서 어깨에 무거운 중기관총을 메고 직선거리 19km를 진격했고 해발 900m에서 1,600m의 험준한 산을 오르내렸던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평소에 단련된 강인한 체력과 승리에 대한 자신감에 가득찬 군인정신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불과 28

시간 사이에 이탈리아군 5개연대~~자~~××롬멜의 산악전투단에 의해서 격멸되었는데 그때 장교 150명과 사병 9,000여 명의 포로와 포 81문을 노획하는 측·후방 우회공격과 기습달성을 완벽히 해내었다. 산악작전에 있어서는 정면공격을 회피하고 측·후방 공격을 시행하되 동시에 압력을 가해야 하며, 상호지원이 곤란하므로 산악에서 작전하는 부대는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이에 따라 험악한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전투근무지원체제와 산악지형에 훈련되고 숙달된 장병의 훈련수준과 특수장비 사용, 훈련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산악지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형에서의 전술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산악작전은 장차 우리군이 직면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전술로 고려되어야한다.

산악지형 침투의 중요성으로 특수전에서의 침투란 아군 지역 또는 아군 통제지역에서 적 지역으로 은밀히 인원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제반활동으로서 적 경계 및 방어진지의 간격 또는 해상이나 공중을 통과하여 적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침투로를 이용한다. 따라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 고도의 침투기술, 최대한 기만방법, 철저한 보안을 통해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회피하면서 목표지역으로 침투해야한다. 적지중심내 침투간 산악극복의 중요성은 먼저 적지중심내 지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동서고저, 북고남저의 현상과 수많은 고지와 능선들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다. 서부와 남부는 평야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산업 및 도시화에 따른 도로와 철도망이 발달되어 있고, 구릉지대는 소구릉, 소분지, 하천, 농경지 등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동부와 북부지역은 산이 높은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산악지역 일대는 침투로 및 통로가 계곡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적지중심내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침투시 정규군의 신장된 배치 및 집결, 준군사부대로 구성된 후방방어부대에 대해 긴장감이 이완되고 침투속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흔적 및 유기물 등으로 전연지대 정규군 수준의 훈련과 조직이 되어있는 후방방어 부대의 추적을 유발하거나 경계 소홀로 매복 및 수색부대에 노출되는 등 적과 조우하는 사

례가 빈번하여 침투에 실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지중심내 침투간산악극복은 작전수행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지중심내 침투간 산악 및 산림지대는 수목이 우거져 은폐와 엄폐를 제공하고 적 항공정찰 및 경계시 관측과 시계를 제한하여 침투부대의 노출위험이 감소된다. 또한 지형의 험준성으로 장애물 설치가 곤란하여 장애물의 위험도가 감소되며 지형의 굴곡은 사계를 제한하여 침투부대의 노출위험이 감소하고 기동수단 운용을 제한하므로 적의 추적 및 수색활동을 곤란하게 하여 단기적 도피, 잠적과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므로 적지중심내 침투간 산악극복은 은밀침투를 가능하게 하며, 작전수행을 위한 생존성 보장은 물론 적 발견시 잠적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일반등반과 특수작전시 등반의 차이점은 적지중심내 침투간 산악극복은 일반등반과 특수작전시 등반하는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일반등반은 산의 암벽을 오르는 등산 기술의 하나로, 등산가들이 보다 어렵고 새로운 등산코스를 찾게 됨에 따라 등산의 대표적 기술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자체를 레저활동으로 즐기기에 이르렀다. 대체로 조를 이루어 등반하며 로프, 카라비너, 등강기 등의 용구를 사용한다. 또한 암벽등반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숙련된 등산가만이 즐길 수 있다. 반면에 특수작전시 등반은 산의 암벽을 오르는 등산기술인 점은 같으나, 레저활동이나 새로운 등산코스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임무수행을 위해 침투하는 과정 중에서 직면할 수 있는 암벽이나 빙벽이라는 자연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인 필요악적인 존재이다. 임무수행간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을 판단했을 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휘되는 전투기술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작전시 등반은 모르거나, 배우지않아도 되는 등반기술이 아닌 작전 팀원이라면 반드시 숙달되어야 하는 등반을 말한다. 여기까지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팀의 산악극복훈련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으며,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장애물극복과 특전부대에서 실시하는 산악극복훈련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악침투를 위한 장애물 극복 등반기술은 산악작전간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강인한 정신력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등반법으로 평소 부대

훈련을 통한 장비 사용법과 등반기능을 숙지해야 한다. 암벽의 명칭으로는 오버랭, 칸테, 릿스, 피어스, 슬랭, 죽스톤, 스텐스, 테레스, 킴내, 크랙, 홀드 등이 있으며 등반 종류는 슬랩등반, 크랙/레이백 등반, 줄사다리 등반, 등강기 등반이 있다. 산악극복 훈련 적용 실태는 현재 산악극복 훈련은 특수전 사령부 예하 특전교육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유격과정에서 산악극복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특전여단은 매년 1회 7박8일간 대대단위로 특수전 상황을 상정하여 개인/중대 단위 암벽극복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보병사단 수색부대 및 군단 특공연대는 연 1회 종합 유격훈련시 산악장애물 극복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악장애물 훈련코스는 하강, 등반, 횡단을 실시하되 부대별 유격훈련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대내 전문 유격과정(특전교육단)

- ① 산악 장애물 극복 능력을 구비하고 생존능력 구비한다.
- ② 교육기간은 3주로 특수전 전문과정 교육입교자 및 타군 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③ 대상자는 입교전 자대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수준 미도달자는 입교를 제한한다.
- ④ 교육은 주둔지 훈련과 야외훈련으로 구분하며 주둔지 훈련은 기초등반으로 로프/암벽 장비 사용법과 확보/하강법을 인공암장 교장에서 실시하고 야외훈련은 암벽등반과 산악구조/종합숙달 위주로 교육한다.
- ⑤ 교육진행은 3주로 기초등반0.6주, 암벽등반1주, 산악구조/종합숙달 0.4주, 도피 및 탈출1주를 실시한다.

* 특전여단 산악극복훈련

- ① 훈련 미경험자 선 간부교육을 통해 간부 임무수행능력 향상
- ② 훈련지역 침투시 장거리 정찰 개념으로 방향유지 및 급속산악행군 실시
- ③ 암벽극복훈련은 체력단련, 주 · 야간 등반 및 하강 등 수준 단계별

④ 악천후로 훈련 불가시는 산악행군 등 체력단련과 주특기 교육 실시
 소결론으로 고금의 연구된 전사를 보나 한국전쟁 중의 전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야전에서 작전 시 작전지역의 조건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대한 것으로 작전의 성패는 전투력을 어떻게 유리하게 작전지역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손자는 “무릇 지형이란 용병을 돕는 것이다. 적의 정세를 헤아려 승리를 얻는데 있어서 지형의 험하고 좁음과 멀고 가까운 것을 계산하는 것은 훌륭한 장수의 용병하는 법이며, 이것을 알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나, 이것을 알고 싸우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한다.”라고 하였다. 한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의 전장은 70% 이상의 산악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과거 전례를 바탕으로 우리군은 장차 예상되는 전투를 위하여 산악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부대편성을 적절히 갖추고, 이에 맞는 전술교리를 우리의 현실과 부합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산악극복훈련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특전부대 및 수색, 특공부대는 험준한 적지중심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벽극복에 대한 교리, 훈련, 장비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실정이다. 이에 반면, 해상침투훈련은 육상침투보다 부대임무를 고려하여 중요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년 2주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팀별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상 척후조 인원을 양성하고 SCUBA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한 해상침투 능력을 구비한 반면, 인원 또한 산악전문과정 대비 상당수 인원을 구비하고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특전부대에 그치지 않고 산악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병사단 수색대대 및 군단 특공연대 또한 변함없는 작전지역에서의 원활한 산악지역전투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등반자 양성, 교육훈련 개선 및 경량화된 장비 보급을 통해 전시 적 지역에서의 생존을 보존함으로써 전투력 우세를 유지하여 전승을 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김희준, 2010:240-257)

3.3.2 동계작전 침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호작전간 가을비가 몇 번 내뿜어니 어느새 찬바람 부는 겨울인 것 같다 벌써 고와텍스를 입지 않고서는 야간과 새벽을 건디기가 쉽지 않다. 동계작전의 전례로 장진호 전투를 소개하고자 한다. 1950년의 추운 겨울 날 함경남도에 위치한 장진호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11월의 함경도는 그야말로 혹한기였다. 산악지역인데다가 폭설까지 내려 전투에서 싸운 군인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전투는 격전이 벌어진 지역 이름을 그대로 따서 장진호 전투(1950.11.26~12.13)라고 부른다. 이 전투는 1950년 당시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진주만 피습 이후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라고 혹평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패배한 전투였다.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후퇴하여 철수했던 작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진호 전투는 세계 전투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전투로 꼽힌다. 미군의 제 1 해병사단과 미 육군보병 제7사단 일부가 장진호 지역으로 진격하였지만 산악지대에 잠입해있던 중공군에게 포위당하고 거의 전멸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는 과정의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다. 생과 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까 이 때 장진호 곳곳에 잠입해 있던 중공군은 무려 7개 사단, 12만 명 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장진호로의 진격 명령을 받은 미군 해병 제 1 사단장인 스미스(Oliver P. Smith)는 한반도 북부의 지형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워진 날씨와 눈 때문에 더더욱 지형을 고려해 진격 계획을 세워야 했죠. 그래서 스미스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단 배후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후 전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해병 제 1 사단이 고립되자 상부에서는 이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포위한 중공군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밤이되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상황은 더욱 어렵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상부로부터 병력을 항공편으로 철수시키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비행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병력이 낙오되는 것을 우려한 스미스는 이를 거절하고 4,300여명의 부상자만을 항공편으로 철수시키게 됩니다. 결국 스미스의 지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

기가 높아진 군인들은 적군과 싸워이겨진 돌파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군인들에게 "우리는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격멸하고 후방을 향하여 새롭게 공격하는 것이다."라며 독려했다. 적진을 뚫는 과정에서 스미스의 명령으로 미리 확보해 놓았던 병참기지와 보급로가 큰 도움이 되었고 미 해병 1 사단은 유담리나 하갈우리 등에서 적진과 맞부딪히며 홍남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어렵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미 해군의 전통대로 동료의 시신을 모두 수거하여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1950년 12월 10일, 미 해병 1 사단은 황초령을 넘어서 홍남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장진호에 잠입해있던 중공군이 미 해병 1 사단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고 중공군의 제 3차 공세에 참가했다면, 과연 6.25 전쟁의 1.4후퇴만으로 끝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전투가 시작된 1950년 11월 27일부터 전투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12월 11일까지 미군 해병 제 1 사단은 전투사상자 3,637명과 비전투전사상자 3,657명을 기록하였고 비전투사상자의 대부분은 동상환자였다. 중공군은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사자 25,000여명, 부상자 12,500명이 발생했다. 중공군 또한 혹한의 날씨에 산 중에 잠입해있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많았던 탓이다.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최고의 결과를 만든 장진호 전투는 지휘관인 스미스의 신중한 리더십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왔던 군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6.25 전사에서 보았듯이 동계에는 북쪽으로 갈수록 지형은 높아지고 기상이 추워지므로 북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특수작전 부대는 전시 작전지역이 북쪽이므로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동계훈련을 철저히 해야지만 생존에 유리하고 생존이 가능해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특전사에서는 강원도 00산에서 체감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상황속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옷을 벗고 눈 속으로 뛰어다니는 등 해발 900미터 강원도 고립무원 산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임무수행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정예 특전 용사가 되기 위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있으며, 전술스키 훈련간에는 대원들이 3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하고 설원 위를 내달린다 Ⅸ가상의 적을 향해 헬기를 이용한 침투 훈련도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을 모든 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훈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매년 각 여단 많은 대대가 다른지역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동계훈련을 아무데서나 하면되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 지역같은 고지대 낮은 기온이 아니기에 훈련의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नेपाल 같은 고지대에서 월드컵을 하게되면 축구선수들이 현지지역에 가서 사전훈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물며 국가의 존립을 위한 훈련인데 00산 같은 북한지역과 비슷한 고지대 훈련장 등이 많아지면 훈련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KCTC같은 과학화 훈련장이 있다면 적이 있는 훈련을 실전감 있게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동계 훈련장에서 과학화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생존을 위해 하지 말라고 해도 야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동시에도 전장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이 아군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로인해 아군의 생존은 높아지고 임무수행을 완수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어떤 지원불가 상황발생시 팀 자체적으로 생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들면 장진호 전투시 미군은 중공군 시체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뿌려 얼려서 진지를 만들었다. 설상이동을 할 경우 설원에 반사된 빛에 의해 시력이 손상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천을 두른다던가 방광방음은 기본이고 방어시 춥다고 경계에 게을리 하는일이 없을 것이며 또, 적의 대규모 침입시 혹은 소수침입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호방법을 마련하고 숙지할 것이며 혹한으로 무전장비를 책임진 인원들은 혹한에서 무기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게 준비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3.3.3 생존훈련 강화

특수전 요원은 적 후방 중심지역에서 제한된 탄약 및 장비와 보급품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갈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존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특수전 교육단의 생존 훈련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소 부족하며 실전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Robin Sage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생존 및 탈출, 저항 그리고 도피훈련과 영국 SAS전투생존훈련 같이 일정한 지역에서 적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오지에서 식량대용으로 토끼, 물고기 심지어는 쥐까지 잡아먹으면서 생존술을 익히며 대검과 성냥만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가상적으로 위장한 심사관들의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과정에서부터 부여하여 이를 몸에 메여 특수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생존교육기간은 양성교육과정에서 24시간, 중급과정에서 20시간 교육하는 것이 전부이다. 교육기간에 배우는 내용은 동물(닭, 토끼) 해체법과 은닉소 구축 체험이 전부이다. 따라서 선진국 특수부대의 생존 교육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생존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의 생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1년에 1개과정 정도로 하고 현재 각 과정별 소개교육식의 생존교육이 아닌 한 차원 높은 전술훈련과 연계된 하나의 과정이 생겨나야 하고 또 이러한 생존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특수휘장을 수여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생존훈련 자체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교육을 전술훈련과 연계하여 교육하거나 전술훈련과 같이 생존훈련 FTX를 실시하여 최대한 극한 상황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인한 생존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개선이 요망된다. 생존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무성무기, 헬기레펠, 산악훈련, 독도법, 의무 등을 통합해서 전장 상황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제시한 모델은 우리 실정에 맞게 2가지 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10> 생존훈련 모델

xlvii

구분	모델 #1	모델 #2
시간	3주	6개월
교육 내용	·생존(1주) ·도피, 저항, 탈출(4일) ·도피/생존(4일) ·포로수용소(4일)	·전술훈련(1월) ·생존(2주) ·일반학(2주) ·산악훈련(3주) ·해상훈련(4주) ·독도법(2주) ·공수훈련(3주) ·동계훈련(2주)
평가 제도	·장교(80%), 부사관(70%)미만 시 재평가 ·수준미달시 퇴교	·퇴교시 특수전부대 자격박탈 ·수료과정 인정
지원 자격	·과정별 장교과정, 부사관 과정 교육실시	·과정 구분 없이 특수전부대 복무자
특징	·전술훈련과 연계된 훈련 ·생존도구 제작활용 ·야외훈련 대항군/군견 추적 ·포로수용소 교육	·훈련지원 전담부대 운용

결론적으로 특수전 부대에 있어서 생존이란 임무수행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써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임무수행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또한 특수작전 요원이 적지에서 살아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적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당시 경험하였다. 단 두명의 적 특수부대 정찰조를 잡기위해 수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또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수전 부대의 모든 훈련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훈련을 하는 목적이 생존하기 위함이고 또 생존하는 목적이 임무수행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훈련을 통해서 각종 특수환경하에서 생존 할 수 있는 또는 생존하고자 하는 생존의지를 향상시키는 훈련이 되도록 생존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임중현, 2007:62-65)

훈련장은 교육훈련의 기반이다 따라서 훈련한대로 전시에 싸우기 위해서는 전시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훈련장이 필수적이다. 미군은 이라크 전쟁 전 미 본토에 있는 NTC(사막지형에 있는 미 국립훈련센터)훈련장에서 실전과 유사한 훈련장을 설치하여 이 곳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 반복 숙달함으로써 실전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라크전에 참가한 장병들에 의하면 NTC훈련장에서 훈련한대로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실전 역시 훈련과 다를바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훈련장 여건은 어떠한가 전장실상에 부합된 훈련을 하기에는 부족한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서 역시 전문성 부족으로 전장 실상을 반영한 효율적인 훈련장을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장실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훈련장은 실전적 훈련을 방해하는 큰 요소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첫째, 훈련장 구성관련 훈련장을 설치할 때 설계 전문가가 없어 훈련 목적에 부합된 효율성과 경제성에 기초한 훈련장을 설치하기 보다는 정형화되어 있는 설계도에 의해 훈련장을 구성,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훈련장이 여러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장차전에 꼭 필요한 도시지역 전투 훈련장이 향토사단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표적이 이미 위치를 알고 있거나 예측 가능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미군은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장을 타운화 하여 각 지역을 돌아가며 숙달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구성하고 여기에 숙영지 등 제반 시설을 배치하여 훈련부대는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훈련장 시설물·교보재 관련 사격 표적의 경우 금방 식별이 가능하고 이동표적은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선형 레일에 모형만 도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군은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도색된 목재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 깊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 표적 식별이 곤란하며, 이동 표적도 지형을 고려하여 굴곡형 레일에 목재로 모형을 만들어 실전감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아직 마일즈 장비와 교보재가 부족한 반면 미군은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항시 사

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췌~~췌, 훈련통제·훈련장관리 관련 우리 군도 일부 중앙통제실에서 훈련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아직 미군처럼 완전하지 않으며 훈련장관리 또한 미군은 지원단이 편성되어 훈련부대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반면(오광세, 2010:205-214) 우리 군은 탄 좁는다고 또 숙영시설 천막치는 등 준비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미국은 국민소득이 높고 국방비도 충분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현실이 그렇치 못하기에 군에 대한 지출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있는 훈련비를 가지고 훈련장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위의 내용을 보완하는 훈련장이 건설되어야 하겠으며 훈련장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겠다. 또 도시지역의 훈련장을 소음 등과 관련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훈련장을 없애어 서는 안되며 소음이 적은 방음사격장 건설 등으로 교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지역은 소음 등의 문제로 훈련장이전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안되겠지만 무조건적인 훈련장 이전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대화의 노력을 경주하는 반면 소음이 적고 친 환경적인 훈련장을 건설하기 위한 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겠다.

3.5 조직의 정예화

북한군의 특수전 부대는 20만이 넘는다. 그에 비해 우리군의 특수전 부대는 2만 정도로 북한 특수전부대에 비해 1/10 수준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군은 수세적인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군은 신속대응군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신속대응군이라 함은 지역개념 방어로 군 병력은 많지 않아 넓은 지역을 전부 지키기에는 제한되기에 시·도·군 단위로 중앙에 기동군 개념으로 상시 대기하다가 상황발생시 원점에 병력을 투입 적을 격멸시키는 개념이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군은 계속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적이 공격해 오리라 판단되는 지역 및 장소에는 특전사 등 최정예 특수부대로 대응한다는 방침

이다. 특수부대는 특수부대로 잡겠다는 것이다 어떤 구체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장 위협이 되는 적 특수전 부대로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은 서해 5도 일대 비파곳의 해상저격여단 3000명이다. 이유는 북한은 전면전으로는 한·미 연합전력에 불리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비대칭 전력은 틀리다 그래서 서해 5도를 자주 넘보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서해 5도 부근인 비파곳에 해상저격여단 약 30

00명을 배치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매스컴에 서는 연일 한미 軍당국 “서해 5도 최대위협…” 훈련상황 등이 집중 보도 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 황해도 비파곳 해군기지에 배치된 인민 군 해상저격여단 전력을 서해지역의 최대 위협세력으로 보고 이 부대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비파 곳 기지에는 북한 서해함대사령부 예하 해상저격여단 병력 3000여 명이 배치돼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비파곳에 배치된 해상저격여단은 북한 특수전 부대 가운데서도 최정예로 평가된다”이에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초부터 정찰 위성과 무인항공기(UAV) 등 각종 연합감시자산으로 이 부대의 병력 이동과 배치 현황, 훈련 상황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비파곳 기지는 지난번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한 백령도 해안에서 80여km 떨어져 있으며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시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출항한 기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한·미 군 당국은 비파곳의 해상저격여단 병력이 서해 5도 기습점령 등 국지도발에 가장 먼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이 병력이 도발할 경우 최단시간내 무력화하는 연합타격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 당국에 따르면 비파곳 기지의 해상저격여단 병력은 지난해 말부터 남포 인근 무인도인 초도 앞바다에서 여러 차례 서해 5도 기습점령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백령도에서 불과 50여km 떨어진 곳에 완공한 고암포의 새 공기부양정 기지에서 해상저격 여단 병력을 태워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해군은 2개의 해상저격여단(1만2000여 명)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유사시 은밀히 침투해 레이더와 해군기지

등 중요시설을 타격하고, 상륙한 해안의 중요지역을 확보해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의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둘째, 북한 00폭풍군단예하 특수전부대이다. 북한은 20만 명 이상의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땅굴과 AN-2 저공 침투기 등으로 침투해 주요 목표타격과 요인암살, 후방교란 등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 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은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을 펼치되 특수전 부대가 북한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시·공간적 위치에 대기하다가 상황발생시 기동헬기/차량으로 신속히 기동하여 적을 격멸시키자는 것이다

발전방향으로 시급한 것은 단거리 기습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해상저격여단 이것에 대한 억지력으로 우리는 정찰기나 감시위성 등으로 감시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북한의 해상저격여단이 북의 카드라면 우리는 그것을 막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그 카드가 왔을때 우리는 어떤 카드로써 공격이 가능한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신속대응군이다 다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IV. 결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강대국들은 많은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 강대국일수록 더 큰 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래 장차작전 양상이 대규모 전면전 보다는 국지적인 분쟁의 해결이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의 전쟁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쟁의 양상이 테러 등 소규모 국지전으로 변해감에 따라 고도의 전문화된 특수전 부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들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에게 인질이된 삼호 주얼리호의 인질을 무사히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작전에서도 특수전 부대의 가치가 새삼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전 부대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부대의 필요성과 활약성을 적

국 홍보하여 국가 및 군의 위상을 높이고 적에게는 큰 심리적 타격을 주고 있다. 북한의 주요 지휘관들도 아군의 특전사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뉴스매체에서 떠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한 국가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많이 보고 배웠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더구나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 특수전 부대를 무려 20만이 넘게 보유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군의 특수전 부대는 2만 정도로 북한 특수전부대에 비해 1/10 수준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군은 수세적인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군은 신속대응군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라크전에서 미 특수전 요원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시적소에 항공공격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타격순간까지 표적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공격을 가능케 하는 등 특수전 전력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을 보면 기계의 위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위성사진 보다는 한명의 특수전 요원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군사전문가들이 분석한 장차전 양상을 요약해보면 다차원 첨단기술전쟁과 정보전쟁이 될 것이며, 화력체계의 혁신적 개발로 무기의 고성능화, 소량화, 경량화를 기하고 있으며 전·후방 구분이 없는 비선형, 분산형, 비 접적전투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평시를 막론하고 각종 형태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기 언급한 전망에 근거하여 우리 특수전 부대가 앞으로 보완, 개선, 발전시켜야 할 주요 교육훈련 발전과제에 대해 대·내외의 환경변화 및 미래 전쟁양상에 대비하여 “작고 강한군대”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훈련 방향을 도출·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전 교육훈련 환경을 전망하고,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실태 분석과 외국군 교육훈련 제도를 고찰하여 미래 교육훈련 요구능력을 도출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 방향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미래 교육훈련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언제, 어디서 적이 도발해 오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

는 국방태세 완비”로 실질적으로 특전사 전 부대 교육훈련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육군본부. (2005). 『교육참고 21-79 교육훈련 지침서』.

특전사령부. (2010). 『특전부대 야외전술훈련 참고서』.

육군본부. (2012). 『야전교범 7-0 교육훈련』.

육군본부. (2012). 『야전교범 39-1 특수작전』.

나. 논문 및 간행물

월간 플래툰. (2002). 『세계의 특수부대Ⅱ』.

박환재. (2002). 『특전부대 모병업무 발전방향』.

박환재. (2003). 『세계 각 국의 생존훈련체계 및 적용연구』.

김황규. (2004). 『군사혁신을 통한 한국군 발전방안』.

김경두. (2004). 『미래전 대비 특전부대 역할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교육사령부. (2010). 『전투발전 제136호 미 KCT를 통해 본 훈련장
보완 방안』.

교육사령부. (2010). 『전투발전 제136호 산악지형침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

박병규. (2010). 『전투발전 제136호 한국적 여건에 부합한 과학화 훈련
발전방안』.

2. 국외문헌

iv

미 NTC (2007). National Training Center Brief

미 교범 (1998). JP 3-05 Doctrine for Joint Special Oper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warfare training
in light of the environment change of the future combat
– focusing elitism and accomplishment of task –

Kim Su-young

Major in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Dept. of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has been written with the purpose of presenting a future direction of the enhancement of the education issue of special forces according to changes in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 to win the war, which is the purpose of existence of the military, for elitism of special forces and its mission accomplishment to present an effective plan of cultivating small and strong special forces being implemented by the armed forces centering on elitism and mission accomplishment.

The necessity of this study can be seen from the aspect of change in our country's security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 From the aspect of security environment, the possibility of full-scale war is decreasing in the midst of fluid international situation pursues survival and cooperation centering on the US and China but local conflicts are continuing for their own interest (territory

& territorial waters).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US alliance will continue on in the midst of the continuing dual structure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exchange & cooperation, although the national power disparity between the South & the North Korea is intensifying. In addition, the role of Korean military is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aft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hange. Due to the decrease in birthrate since the 1980s, military enlistment resources are decreasing and Korean military needs to change from quantitatively strong military to qualitatively strong military through the military structure reform.

From the aspect of changes in social condition, civil complaints on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re increased according to shooting range noise and relocation of training base through the priority on convenience of people's lives and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relocating training base and return of private land according to urbanization. In addition, education & training condition will continually worsen due to various demands of people in which dissatisfaction on training is increasing for the reason of inconvenience in life and the decrease in people's interest in security. Additionally, physique of new generation soldiers is improving but their fitness is decreasing with weak view of nation and security consciousness, thereby increasing the military education time needed while military service period decreases continuously.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 training that correspon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ew generation soldiers. For the purpose of accepting such changes in social condition and environment and required capability, this study will present an effective plan on the followings

Although the specific methods presented i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not applied unconditionally to the education & training of special forces, they are

expected to drastically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fighting power of special forces when the methods presented earlier are effectively managed.

【Key words】 full-scale wa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new generation soldiers, operational, wartime education & training